

떠났던 외人 돌아오나… 연말 증시 ‘산타’ 기대감 솔솔

11월 외국인 대규모 매도 이어져
이달 들어 1.5조 가까이 순매수
코스피 4000선 앞두고 반등세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
연말 ‘산타랠리’ 기대·경계 교차

“국장은 역시 단타라는 걸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배당이고 실적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산타는 미국 들렸다가 한국 주
식시장으로 오시나요.”

12월에 들어서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산타 랠리’가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위기는 좋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은 이 달 들어 2거래일 동안 1조5000억원 가까이 사들였다. 1470원대를 넘나들던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 프로’ 공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면서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다소 잦아드는 모양새다. 이런 요인이 맞물리며 투자자들 사이에선 “12월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변수는 환율과 일본의 금리인상이 될 것으로 본다.

◆코스피 4000노크, 산타랠리 기대감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중심 코스피 하락으로 손실을 본 개인(개인 투자자)들이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모습.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개 연도의 12월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16번(59%) 상승했다. 이 기간 12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2.2%였다.

특히 강세장을 보였던 해의 12월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훨씬 두드러진다. 1998년 이후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한 해는 총 10번이었는데, 이 중 8번에서 12월이 추가 상승했다. 강세장

해만 따로 평균을 내면 12월 상승률은 6.9%대로, 평년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코스피가 63.6%, 코스닥 지수는 34.6% 올랐다.

12월 시작 이틀째인 2일, 코스피가 4000선(종가 3994.93)을 노르하기 시작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역시 10만3400원까지 치솟자 개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산타랠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타랠리란, 12월 25일 성탄절 전후로

해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계절적인 효과인 셈인데, 성탄절을 계기로 소비가 늘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 관련 기업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투자 유인인 한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발 관세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실적을 향해 달려가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액은 역대 11월 중 최대치인 6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와 전통적 협자 품목인 자동차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를 찍고 내년에는 1.9%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한다. KB증권은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4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증시 여전히 싸고, AI기대감 커
증권가는 12월 산타랠리를 외국인이
끌것으로 본다. 김재승 현대차증권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성이 둔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강세장을 이끌던 외국인 순매수가 11월 들어 빠르게 순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며 “12월 이후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점차 순매수에 나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평가 매력도 여전하다. 코스피가 올해 11월까지 63.6%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싸다”고 강조한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배 수준이다. 일본(1.7배), 대만(3.8배), 아시아 평균(2.2배)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3.5배)보다 낮다.

다만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은 연말 랠리를 보이거나 차익실현 시기가 아니라 1월 실적 시즌을 기다리며 박스권을 보이는 단계”라며 “반도체, 전기장비, 조선은 신규 수주와 주당순이익(EPS) 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실적 발표와 성장 추세를 확인한 이후 주가수익비율(PER) 재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퇴직연금 평가 2년 연속 ‘우수’

업권별 1위, 디폴트옵션·AI지원 호평
장기투자 지원 강화로 경쟁력 입증

NH투자증권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증권·은행·보험 등 41개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 상품, 수익률, 조직·서비스, 수수료 효율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NH투자증권은 종합 평가 상위 10% 내에 들어 2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새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뉴시스

롭게 도입된 업권별 우수 사업자 평가에서도 1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연령대별 특선에 맞춘 디폴트옵션 상품 체계를 도입하고, 적립식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와 AI(인공지능)로 보아드라이저 일임 서비스 등 장기 투자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 부문 부사장은 “NH투자증권은 책임감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고객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CD금리 플러스 ETN’ 상장

단기 자금 운용 대안 부상

미래에셋증권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91일물+0.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 CD금리 플러스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에셋 CD금리 플러스 ETN’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 할 수 있다.

해당 ETN은 단기 자금 시장의 대표 금리인 ‘CD 91일물 금리’를 목표 수익률(YTM)으로 하는 상품이다. 원금에 더해 CD금리만큼의 이자수익을 얻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클리프워터와 해외 대체투자 협력

해외 사모·대체투자 상품 확대
접근성 높여 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제휴로 상품 개발과 판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사모 자산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클리프워터는 미국 사모 대출 및 사모 주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체투자 전문 자문사 및 운용사로, 자문 자산을 포함해 총 127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50억 달러는 초고액 자산가용 대체투자 상품인 인터벌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클리프워터 지주사(CW Parent)의 지분 4.29%를 2723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식 취득의 목적을 “지분투자를 통한 Capital Gain(자본 이득) 취득 등”이라고 알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클리프워터의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대체투자 설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주요 화면 글자 20% 확대 등 개선

신한투자증권이 고령자와 초보 투자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내에 ‘간편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금융 당국의 고령자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도 MTS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간편모드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종목, 현재가, 주문, 잔고, 이제 화면에 우선 적용됐다. MTS 홈화면에서 한번의 설정만으로 간편모드를 손쉽게 켜거나 끌 수 있어, 사용 상황에 따라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UI·UX(사용자환경·경험) 설계 단계부터 가독성과 정보 이해도 향상에 집중했다. 기존 화면 대비 글씨 크기를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USD’, ‘JPY’와 같은 영어 기반 금융 표기를 ‘미국 달러’, ‘일본 엔’ 등 한글로 표기해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 과정에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주문 화면은 ‘간편 주문’ 기능을 별도로 구성해 필수 정보만 보기 쉽게 재배치하고 입력단계를 줄였다. 절차가 복잡한 이제 업무는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혼란을 줄였으며,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MY홈 화면에 ‘사고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해 이상 거래 의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이번 간편모드는 단순 UI 변경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 플랫폼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서비스”라며 “출시 이후 고객 반응과 제안을 기반으로 적용 화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 초고액자산가 전담센터 오픈

강남서 통합 프리미엄 자산관리

하나증권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프리미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를 신규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점 기념행사에는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대현 W M그룹장, 박준희 THE 센터필드 W 센터장과 임직원, 주요 손님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는 국내외 주식투자부터 채권, 글로벌 투자자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취급하며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세일즈 앤트레이딩(S&T) 각 부문 역량을 집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액자산가 전담 센터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